

2026년 7월 16일

Hana FX Daily Letter

한은 금리인상 압박, 환율 안정에 힘 신나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달러 약세와 매도 우위 수급, 한은 긴축 가능성 등에 하락**
daily range 예상: 1,480~1,493원

■ 미국 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도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면서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약화되었음. 이에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환율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금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한-미 금리 역전 폭 축소 전망을 통해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환율 낙폭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중이던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 저가 매수세가 적극 유입될 경우 하단 지지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15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3.5원 내린 1,487.0원에 마감**
미국 CPI 둔화 소식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 완화와 달러 약세 여파로 1,490.0원에 장을 시작. 장중 저가 매수세로 반등했으나 수출업체 매도 물량에 밀려 하락 전환, 1,484.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칩. 이후 야간장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 예상을 하회한 미 PPI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자 1,480원대 후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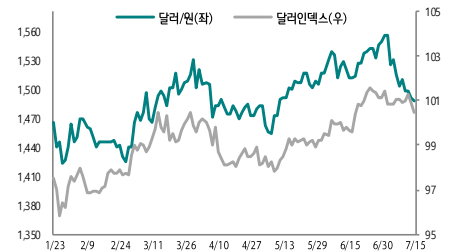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의 6월 PPI가 전월대비 0.3% 하락하는 등 물가 둔화세가 연속 확인되자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완화되면서 약달러 흐름이 강화됨
- (유로-달러)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돌 것이라는 ECB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연준 이사의 도비시한 발언과 대비되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냄
- (달러-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유가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예상을 밑돈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에 미 국내금리가 추가 하락한 영향으로 엔화는 소폭 강세를 보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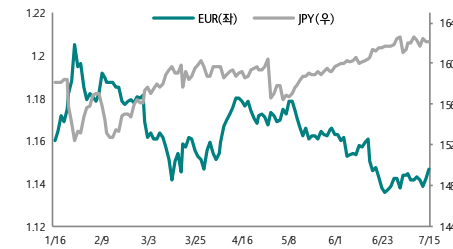
■ **금일 개최될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최근 한은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 시그널을 전달한 만큼, 시장 역시 이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임. 현재 국내 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2% 중후반대로 상향 조정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됨. 여기에 고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 안정 리스크, 그리고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역시 한은의 긴축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의 인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연속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달러/원 환율이 1,500원선 아래로 내려왔고, 국제유가도 고점 대비 크게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연속 인상보다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결론적으로 이번 한은의 금리인상은 연준보다 앞선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원화 가치에 긍정적 인 재료로 작용할 전망. 최근 대내 수급 개선 등에 힘입어 환율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매파적 기조는 환율 하방 안정화 흐름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90.0	1,494.0	1,484.5	1,485.1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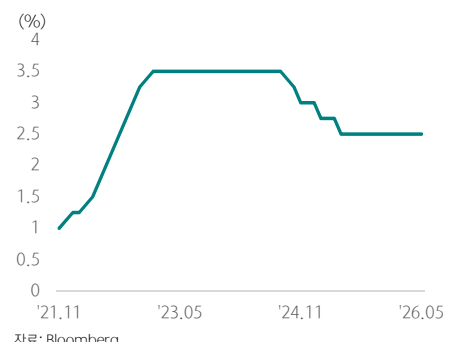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465	162.15	6.7684
전일대비	+0.0045	-0.03	-0.0050
재정환율	1,709.1	919.03	220.19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0:00	한국 BOK 금리결정	2.75%	2.50%
21:30	미국 6월 소매판매(MoM)	0.2%	0.9%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7k	215k

한국 기준금리 추이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